

동지가 금속노조다!

대전충북지부

36호

발행인 : 조민제
발행일 : 2014년 8월 18일(월요일)
발행처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교육선전부



휴가 이후에도
지부교섭
감감무소식

사용자들, 의도적으로 지부교섭 파행

2014년 지부교섭이 멈춰있다. 휴가 이전 결렬선언한 이후에 아직도 지부교섭이 열리지 않고 있다. 사측 제시안이 형편없는 수준에서 제시된 이후에 아무런 진전이 없어 교섭이 결렬되었다. 결렬 선언 당시 사측이 논의할만한 제시안을 준비하면 교섭을 재개하겠다고 했으나 휴가 이후 아직도 사측은 소식이 없다. 지회별로는 교섭을 진척시키면서 의도적으로 지부교섭을 파행으로 만들어, 금속노조의 산별교섭을 지역에서부터 점차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다.

22일 15만 총파업 돌입한다

현재 중앙교섭도 지난 12일 11차 교섭까지 별 내용없이 진행됐다. 노조는 의견접근을 위해 차기교섭부터는 본교섭과 축소교섭을 병행하자는 제안을 한 상태이다. 지부교섭도 이에 발맞춰 집중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상황인데 사용자들은 교섭위원이 출장이라는 핑계를 대며 교섭을 해태하고 있다. 지부가 이번 주 19일, 21일 지부교섭을 진행할 것을 제안했지만 교섭이 열릴지는 아직도 미지수이다.

금속노조는 22일 15만 전체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현대차지부도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결과가 행정지도로 나오더라도 22일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통상임금과 노동시간 단축 관련해서 사용자측이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는다면 올해 투쟁은 추석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이미 노조는 22일 총파업 이후에도 임단협이 진전이 없다면 27일, 29일 전면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힌 상태다. 휴가를 넘기면서까지 인내한 조합원들에게 사용자들이 진정성있는 답을 내놓아야 한다.

함께 싸우고 함께 승리한다

금속노조의 산별정신은 사업장을 넘어 함께 싸우고 함께 승리한다는 것이다. 비록 사업장별로 임단협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상황 속에서도 지부교섭과 중앙교섭을 만들어오면서 함께 투쟁하는 역사를 만들어왔다. 그러나 자본의 간교한 이간질과 분열 책동은 지부교섭과 중앙교섭을 쉽지 않게 만들고 있다. 올해 임단협이 휴가를 넘기고 추석까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 마지막까지 흔들림없이 함께 싸우자.

금속노조 총단결 총투쟁! 14투쟁 승리하자!

코스파지회 천막농성 돌입!

코스파지회가 11일부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그동안 임단협 교섭을 진행해왔지만 아직도 조합원들의 마음을 움직일만한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다. 지회는 사측의 성의있는 답변을 촉구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코스파지회는 현재 통상임금, 조합활동 등의 문제에서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코스파지회는 2012년 설립될 당시에 파업까지 가지 않고 노사간의 교섭이 마무리되었다. 2013년 임금교섭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올해 교섭은 쉽게 풀리지 않고 있다. 지회는 벌써 7월 22일 한차례 파업을 벌였다. 그럼에도 사측은 만족할만한 안을 내지 않고 있다. 지회는 사측이 성의있는 내용을 보이지 않으면 재차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코스파지회는 음성과 김천공장이 동시에 금속노조에 가입하면서 조합을 설립했다. 그동안의 설움을 참지 못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준비하며 조합을 설립했다. 그만큼 양 공장의 단결력은 단단하다. 2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지회의 단결력은 흔들림이 없다. 사측이 어떠한 도발을 하더라도 강고하게 대응할 준비가 되어있다. 사측은 조합원들의 분노가 폭발하기 전에 성실히 교섭에 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미 조합원들은 너무 많이 기다렸다.



“특별법 제정하지 않으면 광화문에서 죽겠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노동자, 시민, 학생들의 함성이 8월15일 서울시청 앞 광장을 가득 채웠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15시 서울광장에서 ‘청와대를 향한 10만인의 함성’이라는 제목으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8·15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노동자, 종교인, 학생 등 이날 대회에 참가한 3만여 명의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 책임을 묻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포함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금속노조 조합원을 비롯한 민주노총 조합원 5천여 명은 서울역에서 8.15노동자대회를 마치고 행진해 참석했고 세월호 유가족 120여명은 맨 앞줄에 앉아 행사에 참여했다. 이날 대회에서 평범한 시민들의 격려와 결의발언이 이어졌다.

광화문 광장에서 33일째 단식을 벌이고 있는 세월호 참사 유족 김영오 조합원(노조 총남지부 명신지회)은 만류를 무릅쓰고 구급차를 타고 와 발언에 나서 참가자들의 기립박수를 받았다. 김 조합원은 “제게 힘을 주기 위해 초종교, 대학생들이 광화문 광장을 찾아 온다”고 고마워하며 “학생들도 세월호 특별법이 왜 필요한지 정확히 알고 있는데 왜 정부가 거부하는지 모르겠다”고 규탄했다. 김 조합원은 “제대로 특별법을 제정해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성원해 준 국민에게 은혜를 갚는 것”이라며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으면 광화문 광장에서 죽겠다”고 밝혀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범국민대회를 마친 노동자, 시민, 학생들은 17시50분 쯤 서울광장을 출발해 행진을 벌였다. 이들은 행진 선두가 경찰 차벽에 막히자 을지로 3가에서 삼삼오오 흩어져 19시 무렵 종각역 네거리 부근에서 다시 모여 박근혜 퇴진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21시30분 까지 시위를 벌였다.



“경쟁과 불평등 교육에서 협력과 평등의 공교육으로”

‘진보교육 실현과 대학공공성 강화를 위한 2014 교육혁명’ 대장정 참가자들이 13일 충북을 찾았다. 이들은 1박 2일동안 거리선전전과 간담회 등을 진행하며 대학공공성 강화 및 특권학교 폐지 캠페인을 벌였다.

14일에는 충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의 교육시장화 정책을 비판하며 교육 개편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공공성과 평등에 기초한 사람중심의 교육이 꽃필 수 있도록 교육체제를 혁명적으로 전환할 것과 경쟁과 서열화, 불평등 교육을 폐지하고 협력과 평등의 새로운 공교육을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민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장은 “13개 지역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됐다. 잘못된 교육을 바로잡고자 하는 국민의 열망을 보여준 것이다. 4년 동안 교육혁명 대장정이 거리에서 외쳤던 특권학교 폐지, 교육복지 확대, 혁신학교 추진, 학교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의 요구를 실현시킬 단초를 대장정이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교육현장에서 노동인권은 가볍게 무시되고 있다. 전교조 노조아님 통보, 학교비정규직 문제, 비정규직 강사, 시간제 강사 등 교육주체들의 노동인권이 교육 현장에서 짓밟히고 있다”며 학교에서부터 노동기본권을 확고하게 보장하고, 다양한 교육주체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주의 사진

※ 사진 제보받습니다 jswcool@naver.com



<8.15 세월호 10만 범국민대회>



<8.15 세월호 10만 범국민대회>



<8.15 세월호 10만 범국민대회>



<8.18 노조파괴 재정신청 1인 시위>